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과 심리적 적응 및 비행문제

Victimiz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김영미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oungmi Kim(mgymk@deu.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중복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자연영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 자료의 6,174사례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8.3%가 2가지 이상의 폭력피해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중 2.1%는 3가지 이상의 폭력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했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가구경제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의 중복피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복피해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스트레스, 비행수준은 가장 높은 반면 자존감 정도는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중복피해 연구와 개입을 위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폭력피해 | 중복피해 | 청소년 | 심리적 적응 | 비행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ctual condition of poly-victimization and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level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linquency by victimization types among adolescents. A total 6,174 cases from ‘2013 Adolescent Deviant Behaviors and Policy Issues’ of NYPI was used for the analysis. Main findings are that 8.3% of adolescents exposed to more than two types of victimization and 2.1% of them experienced more than three types of victimiza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delinquency by victimization types.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intervention of adolescent poly-victimization.

■ keyword : | Victimization | Poly-victimization | Adolescent | Psychological Adaptation | Delinquency |

1. 서론

폭력피해는 연령에 상관없이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이다. 청소년은 환경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 미숙하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환경의 폭력상황에 일방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신체학대와 성학대, 가정폭력 목격, 학교폭력과 같은 폭력상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신체건강에 초래한 부정적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2015AA086)

접수일자 : 2015년 11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1월 21일

교신저자 : 김영미, e-mail : mgymk@deu.ac.kr

결과들을 확인했다[1][2][11][13]. 또한 이들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청소년기의 폭력피해가 성인기 폭력피해를 예측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런데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심지어 폭력피해 경험 후 1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폭력상황에 중복적으로 노출된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4][5], 최근에는 청소년의 중복적 폭력피해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복피해(poly-victimization)란 동일한 폭력피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폭력피해에 중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를 말한다[6]. 최근의 국외연구들에 의하면, 측정도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조사대상 청소년의 14~22%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4개 이상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6-8]. 또한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기존에 아동학대나 또래폭력과 같은 단일 폭력의 피해자로 보고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중복피해에 이미 노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중복피해 청소년들은 단일 유형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보다 심리적 외상과 행동문제가 유의미하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5][9][10].

중복피해는 다양한 환경(context)에서 연계적으로 순환되는 특성이 있다. 청소년의 중복피해는 전형적으로 가족환경에서 시작되어 다른 환경으로(cross-condition) 옮겨간다[6]. 즉, 청소년들이 가족체계에서 경험하는 부부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사이에는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 이처럼 가족의 직·간접적 폭력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가해자에 의해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중복적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대표적 발달환경이 가정과 학교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들의 중복피해 실태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부모, 또래집단, 다른 성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폭력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6][11].

사실상 청소년의 중복피해 실태와 심각성이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 폭력피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특정 폭력피해의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중복적 피해 간에 발생하는 상호관계와 누적효과를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3][10]. 특히 단일 유형의 폭력피해만을 다루는 경우는 중복피해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특별한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33]. 따라서 청소년 폭력피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프로파일을 파악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중복피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국외 연구들은 이미 JVQ(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와 같은 표준화된 척도를 개발하여[12] 전국단위에서 청소년의 중복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입방법 및 치료모델 개발 등의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중복피해에 관련된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외국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등의 단일 피해유형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행히도 최근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관계, 아동학대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13][14], 일반 청소년 표본을 활용하여 중복피해를 검토한 연구는 이인선과 최지현[15], 윤명숙과 조혜정[16]의 연구에 불과하다. 중복피해에 관한 이들 소수의 연구들은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중복피해 실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단지 2개 유형의 중복피해만을 측정하고 결과변수 또한 우울과 음주문제 정도만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중복피해 연구영역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본을 활용하여 중복피해 청소년들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폭력피해가 저연령화 되고 있고[26], 일부 국외연구의 경우 초등학생 중복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10][16],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주요 발달환경인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중복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중복피해 실태는 어느 정도이며, 개인 및

가구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유형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 및 학교환경과 폭력피해

1.1 가족환경과 폭력피해

청소년이 가족환경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폭력피해는 부모 간에 행사하는 부부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직접 당하는 아동학대이다. 부부간의 갈등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부모는 자녀의 훈육에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부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18]. 특히 부모간의 폭력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간접적인 폭력피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 연구들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직접적 폭력상황인 아동학대와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1][17].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가족체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은 가족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되어 있고 폭력기간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은 가족환경 내에서 지속적인 긴장과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부모로 인해 폭력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안전과 안정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1]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적응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가정폭력과 같은 부정적 자극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은 우울불안이나 절망감, 자기비난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13][18][19].

1.2 학교환경과 폭력피해

청소년이 학교환경 내외에서 경험하는 폭력을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폭력주체에 따라 또래집단으로부터의 또래폭력과 교사가 체벌수준을

넘어 학생에게 행사하는 교사폭력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또래폭력(bullying)은 일반적으로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또래들 간에 발생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으로 정의된다[20]. 또래폭력은 대면적인 상황에서 가시적으로 발생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고의로 누군가를 활동이나 집단에서 배제시키는 집단따돌림 형태로 표출된다. 또래폭력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들이 확인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은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폭력과 따돌림은 피해청소년들에게 우울과 공포감 등의 심리적 고통은 물론 등교거부, 자살충동, 학교부적응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검증했다[20][21][34].

교사는 학교환경에서 청소년에게 권위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성인이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체벌은 학교 질서유지와 수업효율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사의 폭언과 체벌은 청소년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효과는 없고, 오히려 폭력의 학습기제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19][23]. 특히 교사로부터 공개적으로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체벌을 당한 청소년은 교사가 또래들 앞에서 자신을 가치 없고 문제가 많은 인간으로 분류했다는 반사된 자아평가(reflected self-appraisal)를 할 수 있다[32]. 이러한 청소년은 자아낙인과 부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일탈행동을 시도할 경향이 높다. 실질적으로 김은경[22]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부적절한 체벌경험과 청소년의 자아낙인 및 비행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사실상, 교사체벌의 역효과로 인해 표출되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는 부모나 또래간의 폭력피해에서 확인되는 부정적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청소년이 교사의 체벌을 모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인식한다면, 분명 학교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피해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복피해 특성과 관련요인

중복피해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피해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중복피해의 개념은 정신건강분야의 다중마약사용(poly-drug use)과 이중진단

(dual diagnosis)의 의미를 근거로 규정되었다[5]. Finkelhor 등[6]은 청소년이 중복피해에 이르는 경로를 4가지 요인 -폭력적인 가족, 위험한 거주 지역, 혼란스럽고 열악한 가족환경,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 으로 설명했다. 중복피해의 경로와 관련요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설명들이 있지만, 간단히 청소년의 가족환경 특성과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족환경 특성은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의 직·간접 폭력행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이다. 가족의 폭력상황 목격이나 부모의 학대와 폭력은 자녀에게 불안, 무력감, 두려움, 자극에 대한 과민반응 등의 정서적 잔여물을 초래한다. 이런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이나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적절한 사회정보 인지과정과 대처행동 등이 미숙하기 때문에[11][24] 학교나 지역사회의 폭력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Perry 등[11]은 청소년이 폭력적인 가족에서 성장할 경우, 피해자 사고도식(victim schema)이 형성되어 타인과의 적절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모의 질병, 정신질환, 약물중독,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도 안전과 관심, 애착에 대한 지나친 결핍과 갈망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황판단과 반응양식이 어색하기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6].

중복피해의 또 다른 관련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으로써 이전 폭력피해로 초래된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인지적 왜곡이 중복피해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청소년은 가족이나 또래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경험하면서 불안, 분노, 수치심, 자기비난, 자기낙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인지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아동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조절과 상황대처 능력이 미숙하고, 과도하게 공격적이고 논쟁적 성향을 보이거나, 위축되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폭력상황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4][5].

사실상 앞서 언급한 중복피해 관련요인인 가족환경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상당수의 중복피해 청소년들은 최초 폭력피해를 가정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손상을 입게 되어 연속적인 폭력상황에 취약하게 된다[33].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에게 폭력피해는 하나의 사건(even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정에서의 중복적 상황(condition)으로 지속적인 상호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6].

3. 중복피해와 심리적 적응 및 비행

지역사회의 일반 청소년 표본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은 측정도구에 따라 중복피해 비율에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복피해 청소년들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행동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보고했다. Finkelhor 등[5]은 아동청소년 중복피해에 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발표했는데, 미국의 2~17세 2,030명 대상의 전국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의 22%가 일 년 내에 4가지 이상의 폭력피해(아동학대, 또래폭력, 폭력목격, 성학대 등)를 경험했고, 이들의 우울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검증했다.

특히 Finkelhor 등의 연구에 의하면, 중복피해 청소년들은 한 가지 폭력을 만성적으로 겪은 집단보다 심리적 외상이 유의미하게 심각했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중복피해 집단은 우울불안, 적대감, 자살생각, 비행행동, 약물사용 정도는 심각한 반면 자존감, 학업성적, 학교소속감, 신체건강 수준은 낮았다[9][10][25]. 한편, Romano 등[8]은 캐나다의 13~16세 1,036명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23.7%가 3개 이상의 중복피해 경험이 있음을 확인했다. Chan[7]은 Finkelhor 등[12]와 동일한 중복피해척도를 활용하여 중국 청소년 18,341명 표본을 연구했다. 분석결과 조사대상 중국청소년의 14%가 4개 이상의 폭력피해 경험이 있었고, 이들 청소년들은 우울, 자기학대,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와는 달리, 국내의 중복피해 연구는 현재 초기단계이다. 윤명숙과 조혜정[16]의 연구와 이인선과 최지현[15]의 연구는 모두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2개 유형에서의 중복피해와 청소년의 적응문제를 분석했다. 윤명숙과 조혜정[16]은 초등학교생의 23.2%, 중학생의 11.3%가 중복피해 경험이 있고, 중복피해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 및 단일피해 집단에 비해 우울수준이 높고 음주경험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이인선과 최지현[15]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45%가 중복피해 경험이 있었고, 이들 청소년들은 우울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는 낮았다. 두 연구에서 중복피해 비율의 차이가 큰 이유는 이인선과 최지현[15]의 연구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중 하나만 경험이 있는 경우를 가정폭력으로 측정한 반면, 윤명숙과 조혜정[16]은 부모폭력목격과 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중 하나만 경험이 있어도 가정폭력 피해경험으로 조작화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중복피해는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중복피해 집단은 한 가지 폭력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집단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긍정적 자기인식이 낮으며, 비행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요인과 행동문제로 우울불안, 스트레스 및 자존감과 비행문제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존감은 폭력피해 청소년이 보이는 부정적 자기인식을 대신해서(proxy) 측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6]에서 실시한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의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했다. 이 조사자료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및 문제상황 경험, 비행,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에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포괄하고 있고, 조사대상이 중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초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사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 검증에 위한 2차 자료로 선택했다.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는 중화단체집락표집을 통해 전국의 초등학교 120개, 중학교 99개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각 1개 학급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크기는 초등학교 4~6학년 2,164명, 중학교 1~3학년 3,195명으로, 전체 6,359명의 청소년이 조사에 참여했다[26]. 본 연구는 부모관련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계시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6,174사례를 활용했다.

2. 변수측정

2.1 폭력피해 경험유형

폭력피해경험은 5가지 유형 -부부폭력 목격경험,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학대, 학교환경에서 경험한 교사폭력 및 또래폭력 피해경험, 중복피해- 으로 측정하였다.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부모님들이 때리고 욕하면서 아주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신 적이 있다’, 아동학대 피해경험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하게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교사폭력 피해경험은 ‘선생님으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를 받은 적이 있다’의 경험유무를 묻는 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되었다. 또래폭력은 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 협박, 폭행피해 경험유무를 묻는 3문항을 활용하였으며, 3문항 중 하나라도 피해경험이 있는 사례를 또래폭력 피해경험 사례로 정의하였다.

한편, 중복피해는 위 4가지 피해유형 중 2개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경우와 3~4개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경우로 구분하여 활용하였다.

2.2 우울불안

우울불안은 모든 일에 흥미가 없음, 걱정, 불안, 외로움, 자살생각, 감정조절문제 등을 묻는 1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우울불안의 Cronbach's α 값은 .889이다.

2.3 비행

비행은 가출, 폭행, 금품갈취, 무단결석, 정학이상의 처벌, 유해업소 출입 등을 묻는 7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경험유무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1,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처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가 높을수록 비행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2.4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부모님과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관련 스트레스를 묻는 2문항, 친구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관련 스트레스 2문항, 학교성적과 학업관련 스트레스 2문항의 총 6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스트레스의 Cronbach's α 값은 .784이다.

2.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을 능력이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평가하는 총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2개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값은 .806이다.

2.6 개인 및 가구특성

개인특성 요인은 성별과 학교급을, 가구특성은 양친 부모가족 여부와 가구경제수준을 활용하였다. 가구경제수준은 '매우 못 산다(1점)'에서 '매우 잘 산다(7점)'의 7점 점수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구경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개인 및 가구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유형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X^2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F검증(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6,174명 중 남학생이 51.2%, 여학생이 48.8%, 초등학교(4~6학년)이 49.5%, 중학생이 50.5%이다. 연령범위는 9~16세이며, 평균연령은 13.4세이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92.9%는 양친부모와 살고, 7.1%는 한부모와 살고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의 40%는 대도시, 47.3%는 중소도시, 12.7%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학생	3,160	51.2
	여학생	3,014	48.8
학교급	초등학교	3,058	49.5
	중학교	3,116	50.5
가족구조	양친부모	5,733	92.9
	한부모	441	7.1
거주지역	대도시	2,468	40.0
	중소도시	2,924	47.3
	농어촌	782	12.7

N=6,174

2. 폭력피해 경험실태

[표 2]는 폭력피해 경험실태를 보여주는데, 연구대상 청소년의 8.3%는 2개 유형 이상의 폭력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했고, 2.1%는 3개 이상의 폭력피해에 중복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연구대상 청소년의 9%는 부부폭력 목격경험만 있었고, 6.8%는 또래폭력 피해경험만, 3.1%는 교사폭력 피해경험만, 0.9%는 아동학대 피해경험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폭력피해 경험실태

피해유형	사례수 (%)	피해유형	사례수 (%)
피해없음	4,445(72.0)	교사폭력	192(3.1)
부부폭력	558(9.0)	2개중복	379(6.2)
아동학대	55(0.9)	3개중복	128(2.1)
또래폭력	417(6.8)	전체	6,174(100)

부부폭력, 아동학대, 또래폭력, 교사폭력 사례 수는 중복피해 경험을 제외하고, 개별 피해유형만을 포함한 것임

[표 3]은 폭력피해 유형 중 중복피해 실태를 보다 상

세하게 제시해준다. 2개 유형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는 부부폭력목격과 또래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이 4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의 중복피해 경험이 21.4%, 또래폭력과 교사폭력의 중복피해가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 사이의 폭력상황을 많이 목격한 청소년들이 동시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폭력피해와 아동학대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개 이상의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청소년 중에는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또래폭력 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경우가 38.3%로 가장 많았다.

표 3. 중복피해 실태

2개 폭력피해 (n=379)	비율 (%)	3·4개 폭력피해 (n=128)	비율 (%)
부부폭력/아동학대	21.4	부부폭력/아동학대/또래폭력	38.3
부부폭력/또래폭력	41.7	부부폭력/아동학대/교사폭력	14.8
부부폭력/교사폭력	12.9	부부폭력/또래폭력/교사폭력	25.0
아동학대/또래폭력	5.8	아동학대/또래폭력/교사폭력	6.3
아동학대/교사폭력	2.9	4개 폭력피해	15.6
또래폭력/교사폭력	15.3		
총합	100.0	총합	100.0

3. 개인 및 가구특성과 폭력피해 경험유형의 관계

청소년의 개인 및 가구특성인 성별, 학교급, 가족구조, 가구경제수준과 폭력피해 경험유형사이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X^2 및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학교급, 가족유형, 가구경제수준은 모두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유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과 폭력피해 경험유형과의 관계를 보면,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폭력피해 무경험 비율은 낮지만, 중복피해와 부부폭력 목격경험과 또래폭력 피해 경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급과 폭력피해 경험유형과 관계를 보면,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중복피해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에 따라 폭력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구조와 폭력피해 경험유형의 관계에서는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양친부모가족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15.9%가 2개 이상의 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 결과는 한부모가족 청소년들이 중복피해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폭력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폭력피해 경험유형과 가구경제수준의 관계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는데($F=27.278^{***}$), 폭력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집단의 가구경제수준은 4.73으로 가장 높았고, 3~4개 중복피해 경험집단은 4.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경제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폭력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개인 및 가구특성과 폭력피해유형의 관계

	성별(%)		학교급(%)		가족구조(%)		가구경제수준(평균)
	남	여	초등학교	중학교	양친부모	한부모	
피해없음 (n=4,445)	74.1	69.8	77.1	67.0	73.0	59.2	4.73
부부폭력 (n=558)	8.3	9.8	7.7	10.4	8.8	12.7	4.32
아동학대 (n=55)	1.2	0.6	0.7	1.1	0.9	1.1	4.58
또래폭력 (n=417)	5.2	8.4	6.0	7.5	6.7	7.9	4.55
교사폭력 (n=192)	3.9	2.3	2.4	3.8	3.1	3.2	4.72
2개중복 (n=379)	5.2	7.1	4.5	7.7	5.6	13.2	4.16
3·4개중복 (n=128)	2.1	2.0	1.6	2.6	2.0	2.7	4.11
X^2 / F	58.765***		84.769***		58.188***		27.278***

p<.01 *p<.001; 전체사례수=6,174

4.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과 비행 문제의 차이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비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ANOVA)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수준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울불안을 살펴보면($F=117.01$, $p<.000$), 폭력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수준이 가장 낮았고, 중복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단일유형의 폭력만을 경험한 청소년들보다 우

울불안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스트레스의 경우도 ($F=88.38, p<.000$), 폭력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낮은 반면, 중복피해나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폭력피해 경험에 따른 자존감 수준에 관한 결과는($F=22.25, p<.000$) 폭력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의 자존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가장 높았고, 아동학대나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비행문제는($F=145.69, p<.000$) 폭력피해를 3~4개 중복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개 유형의 중복피해와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단일 폭력피해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폭력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적응 및 비행

	우울불안	스트레스	비행	자존감
	평균(SD)	평균(SD)	평균(SD)	평균(SD)
피해없음 (n=4,445)	19.7(7.8)	13.8(4.8)	7.15(0.5)	22.2(4.4)
부부폭력 (n=558)	23.6(7.9)	15.9(4.6)	7.37(0.7)	21.2(4.2)
아동학대 (n=55)	25.0(7.2)	17.9(4.1)	7.52(0.8)	21.0(4.5)
또래폭력 (n=417)	24.9(8.4)	16.5(4.7)	7.43(0.8)	21.3(4.7)
교사폭력 (n=192)	23.1(8.9)	15.5(5.2)	7.50(0.9)	21.9(4.7)
2개중복 (n=379)	27.6(9.0)	17.8(4.8)	7.82(1.1)	20.1(4.9)
3-4개중복 (n=128)	29.3(8.9)	18.8(4.8)	8.50(1.7)	19.6(4.7)
F값	117.01***	88.38***	145.69***	22.25***
사후검정 Scheffe	a(b,c,d,e (f,g	a(b,d,e (c,f,g	a(b,d,e (c,f,g	c,f,g (b,d,e,a

p<.01 *p<.001; 피해없음=a, 부부폭력=b, 아동학대=c, 또래폭력=d, 교사폭력=e, 2개중복피해=f, 3-4개중복피해=g

요약하면,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적응문제가 심각하고 비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자존감은 가장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일 피해유형 중에서는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심리적 적응문제와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폭력피해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스트레스 및 비행수준은 가장 낮고, 자존감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주요 발달환경인 가정과 학교 환경에서 경험하는 폭력의 중복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복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8.3%가 2가지 이상의 폭력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 중 2.1%는 3~4개의 폭력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했다. 또한 2개 유형 이상의 중복피해 비율이 초등학생은 6.1%, 중학생은 10.3%였다. 기존 국내연구의 경우, 이인선과 최지현[15]의 연구에서는 2개 유형 폭력피해를 경험한 중복피해 중학생이 4.5%인 반면, 윤명숙과 조혜정[16]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은 11.3%, 초등학생은 23.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태비율이 기존 국내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중복피해를 조작화한 측정도구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외 연구들은 JQV 척도를 활용해서 4개 유형 이상의 폭력피해 경험을 중복피해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미국 청소년은 22~25%정도가[5][9][10], 중국은 14% 정도[17]가 중복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중복피해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중복피해 실태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결과는 2가지 유형 중복피해의 경우, 부부폭력목격과 또래폭력의 중복경험이 4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피해가 21.4%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상황이 가족과 학교 환경 사이에서 연계적으로 순환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단일폭력 발생비율 자체가 부부폭력목격과 또래폭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가구특성과 폭력피해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양친가족 자녀보다, 가구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중복피해 경험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Finkelhor 등[6]

이 검증한바와 같이, 부모간의 문제와 가족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적절한 보호와 모니터링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폭력상황에 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Perry 등[11]은 부모의 문제로 인해 성장과정동안 안전과 애착에 지나친 갈망이 있는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대응과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이용당하거나 폭력상황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경험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적 디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우울불안과 스트레스의 경우, 중복피해 경험집단은 단일 폭력만을 경험한 집단이나 무경험집단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우울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보고했다. 반면, 중복피해 경험집단은 다른 폭력경험 집단에 비해 자존감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것은 중복피해 청소년들의 우울문제와 다양한 디스트레스 문제의 취약성을 검증한 국내외 연구결과와 일관된 것이다[9][15][24]. 중복피해 청소년들이 표출하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학습된 무기력 이론[27]을 통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폭력상황 노출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외상사건이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력감이 형성되어 우울이나 자기비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28].

또한 심리적 적응문제에 관련된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아동학대만을 경험한 집단이 중복피해 경험 집단과 유사할 정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자존감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를 부모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으로 측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부모의 신체학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인식에 중복적인 폭력피해 만큼의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15][24],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특성과 원인을 보다 주의 깊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복피해 집단, 특히 3~4개 유형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비

행정도가 유의미하게 가장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또한 2개 유형 중복집단과 아동학대만을 경험한 집단도 여타 단일피해 경험집단에 비해 비행정도가 유의미하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들도 중복피해 청소년들의 비행 및 일탈행동정도가 상대적으로 위험수준에 있음을 보고했다[9][31]. 중복피해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는 일반적으로 학습이론이나 일반긴장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즉 Bandura[29]의 학습이론을 따르면,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에서 중복적인 폭력상황을 경험하면서 모델링을 통해 공격성과 폭력성을 강화하게 되어 비행위험성에 취약하게 된다. 또한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서는[30] 청소년이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또래괴롭힘, 교사의 폭행을 경험하는 경우 우울불안, 분노,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감정을 갖기 쉽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기 위해 비행과 일탈행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19].

이상의 본 연구에서 확인된 분석결과들은 중복피해 청소년에 대한 후속연구와 개입에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해준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복피해 실태를 고려한다면, 청소년 폭력피해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는 중복피해 실태와 후유증을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지역사회 청소년대상의 중복피해 연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소수 연구들도 모두 다른 기준에 의해 중복피해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황을 외국 실태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중복피해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JVQ[12]와 같은 표준화된 측정도구의 개발과 타당화 작업이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중복적으로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적 적응문제와 비행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청소년 폭력피해의 선별과 개입을 위한 출구(gateway)가 되는 곳은 학교환경이다[10]. 이미 학교와 다양한 기관에 의해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실시되고 있다. 학교상당사나 교육복지사는 학교폭력 개입과정동안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중복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선별하고, 이들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취약성과 위험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정할 수 있는 임상적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국외연구들에서도 확인되듯이[33], 만일 중복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초기개입을 실시하지 못한다면 이들 청소년들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동안 다른 환경에서 더욱 치명적인 폭력상황에 중복적으로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피해 고위험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개입방안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국 조사 표본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와는 달리 2개 이상, 3~4개 유형의 중복폭력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폭력피해 유형에 따라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차자료 분석 등의 이유로 후속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차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폭력피해유형과 우울불안, 스트레스, 자존감, 비행과 같은 변수 조작화에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복피해의 경우, 원 자료에 부부폭력목격, 아동학대, 교사폭력, 또래폭력의 발생여부에 관한 정보만 있고, 발생빈도나 강도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중복피해 발생환경을 단지 가정과 학교환경에 국한해서 파악했다. 중복피해 심각성과 후유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외연구들과 같이 가정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폭력피해 상황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표본을 활용한 중복피해 연구의 초보적 단계이기 때문에 실태파악과 중복유형에 따른 심리적 적응과 비행문제 차이만을 검증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후속연구들에서는 종단자료 수집을 통해 단일피해가 중복피해로 악화되는 과정이나 보호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백종립, 정익중, “부부폭력목격경험과 학대경험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1호, pp.121-142, 2013.

[2] 신선인,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제23권, pp.153-182, 2008.

[3] B. E. Saunders, “Understanding Children Exposed to Violence: Toward an Integration of Overlapping Fiel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83, pp.356-376, 2003.

[4] C. A. Cuevas, D. Finkelhor, C. Clifford, R. K. Ormrod, and H. A. Turner, “Psychological Distress as a Risk Factor for Re-victimization in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Vol.34, pp.235-243, 2010.

[5] D. Finkelhor, R. Ormrod, and H. A. Turner,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 Neglect, Vol.31, pp.7-26, 2007.

[6] D. Finkelhor, R. Ormrod, H. Turner, and M. Holt,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Vol.14, No.4, pp.316-329, 2009.

[7] K. L. Chan, “Victimization and Poly-victimization among school-aged Chinese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Vol.56, pp.207-210, 2013.

[8] E. Romano, T. Bell, and J. Billette,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Multiple Victimization in a Nation-Wide Adolescent Sample,” Child Abuse & Neglect, Vol.35, pp.468-479, 2011.

[9] J. D. Ford, J. D. Elhai, D. F. Connor, and B. C. Frueh, “Poly-victimization and Risk of Posttraumatic,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nd Involvement in Delinquency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46, pp.545-552, 2010.

[10] M. K. Holt, D. Finkelhor, and G. K. Kantor, “Multiple Victimization Experiences of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sociations with

-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Abuse & Neglect*, Vol.31, pp.503-515, 2007.
- [11] D. G. Perry, E. V. E. Hodges, and S. K. Egan,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A Review and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and S. Graham(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73-104, Guilford, 2001.
- [12] D. Finkelhor, R. Ormord, and H. A. Turner, “Measuring Poly victimization using the JVQ,” *Child Abuse & Neglect*, Vol.29, pp.1297-1312, 2005.
- [13] 박은주, 최말옥,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제4호, pp.219-238, 2014.
- [14] 정익중,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제29권, 제4호, pp.1-17, 2008.
- [15] 이인선, 최지현,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5권, 제3호, pp.259-281, 2014.
- [16] 윤명숙, 조혜정,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9권, 제8호, pp.295-329, 2008.
- [17] 장희숙, “가정폭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제4권, 제2호, pp.85-113, 2010.
- [18] 이혜지, 이수정, 윤희진,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비행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2호, pp.41-56, 2015.
- [19] 문병욱, 황혜원,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한 한국 청소년의 비행 이해,”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2호, pp.127-150, 2006.
- [20] 김재엽, 이근영,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5호, pp.121-149, 2010.
- [21] 김현숙,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15권, 제2호, pp.121-143, 2013.
- [22] 김은경, “체벌낙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제4권, 제1호, pp.121-135, 2000.
- [23] 도기봉, 장승옥,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의 체벌행동이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27권, 제1호, pp.197-220, 2014.
- [24] R. D. Duncan, “Maltreatment by Parents and Peer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Bully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Maltreatment*, Vol.4, No.1, pp.45-55, 1999.
- [25] H. A. Turner, A. Shattuck, D. Finkelhor, and S. Hamby, “Support,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30 pp.1-26, 2015.
-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연구*, 2013.
- [27] D. Landis, K. Gaylord-Harden, S. L. Malinowski, and K. E. Grant, “Urban Adolescent Stress and Hopelessness,” *Journal of Adolescence*, Vol.30, pp.1051-1070, 2007.
- [28] 김영미,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학습된 무력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응집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제3호, pp.47-73, 2012.
- [29]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1973.
- [30] R. Agnew and H. R. White, “An Empirical Test of General Strain Theory,” *Criminology*, Vol.30, No.4, pp.475-499, 1992.
- [31] C. M. Arata, J. Langhinrichsen-Rohling, D. Browers, and N. O'Brien, “Differential Correlates of Multi-type Maltreatment among Urban Youth,” *Child Abuse & Neglect*, Vol.31,

pp.393-415, 2007.

- [32] R. L. Matsueda,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27, pp.1577-1611, 1992.
- [33] A. N. Elliott, A. A. Alexander, T. W. Pierce, and J. M. Richmond, "Childhood Victimization, Poly-Victimiz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in Women," Child Maltreatment, Vol.14, No.4, pp.330-343, 2009.
- [34] 김경미, 염유식, 박연민,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36-247, 2013.

저 자 소 개

김 영 미(Youngmi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문학사)
 - 1994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9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MSW)
 - 2003년 8월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Ph. D)
 - 2004년 3월 ~ 현재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정신건강